

## 『마음의 전쟁』

찬 양 찬양 2곡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582장 - 어둔밤 마음에 잠겨

대표기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말 씬 전 11:1-9

전도서 11:1-9 (NKRV)

- 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 4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 5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 7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 올 일은 다 헛되도다
-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의 키포인트** -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 말씀 나누기

1790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인간의 인생 게임(The Game of Human Life)이라는 유명한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말판의 처음 시작은 출생이고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종착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다가 죽음 대신 천국으로 종착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밀톤 브레들리라는 사람이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을 많이 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 되었고 2007년에는 인생의 4가지 영역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말하는 인생의 4가지 영역이란 배우는 것(Learn), 사는 것(Live), 사랑하는 것(Love), 버는 것(Earn)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4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게임에 등장하는 인생의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5절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즉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8절에는 “여러 해를 살면 캄캄한 날들이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9절에는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2절에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것, 사는 것, 사랑하는 것, 버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헛되도다”(전11:10)라고 전도자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에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말은 이집트 속담에서 따온 말로 그 뜻은 선을 베풀 때 여러날 후에 되돌려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살면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이 더 풍성하게 보상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에 1을 더한 수 8은 무한정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지 않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인생의 재앙, 캄캄한 날이 와도 염려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떡은 배우는 것, 사는 것, 사랑하는 것, 버리

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중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19:16-22). 부자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답하셨습니다. 청년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하는 떡,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눔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요4: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란 생명, 즉 영혼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떡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배후에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는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군에 비해 무기와 물자, 군인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일어난 전쟁 초반에 춘천전투에서 잘 싸워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후 UN군이 파병되고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떡을 차지하고자 일어난 전쟁임에도 16개의 나라가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참한 전쟁의 역사속에서도 나누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에서 무기를 실으러 온 배가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로도 철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배에 타고 피난 온 사람 중에 임길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서 도착하면 남은 인생 남은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후 이 가족은 대전에 정착하게 되었고 배급으로 받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팔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성심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가게가 잘 되어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겠다는 정신(포콜라레)을 잃지않고 경영을 했습니다. 회계, 세무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월급 이외에 이윤의 15%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고, 동료들간의 평판을 인사고과에 40%를 반영하는 등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화재로 인해서 가게가 모두 불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심당은 망했다” 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나서서 가게를 치우고 복구하여 6일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성심당의 이 나눔의 정신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성심당”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라는 성경말씀을 붙들고 사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떡을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적용 - 삶 나누기

1.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이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2.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비 그리스도인의 나눔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봅시다.
3.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 중보기도

1.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한해가 되게 하소서
2.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